



서악리 삼층석탑에서 5월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불적답사 참가자들이 최민희 부설연구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답사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선도산 마애삼존불의 모습. 적지 않은 결락이 이뤄져 있지만 그 웅장함은 남아있다.



태종무열왕릉비를 답사하는 남산불적답사 참가자들.

천년 신라 지킨 서악에서 경주 바라보니...

선도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신라시대의 경주는 총 5개의 산을 진산(鎭山)으로 섬겼고, 이를 오악이라고 했다. 동쪽의 토함산(吐含山), 서쪽의 선도산, 남쪽의 남산(南山), 북쪽의 북악(北岳), 중앙의 부악(釜岳)이다.

특히 선도산은 신라의 초기 민간 신앙과의 연결돼 있다. <삼국유사>권5 감동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진평왕 때 안흥사(현재 영주군에 있었던 사찰)의 비구니 지혜 스님이 불전을 수리하려 하였으나 힘이 모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선도산의 성모가 나타나 불전 수리를 기특한 일이라면서 내 자리 밑에서 황금 10근을 꺼내 쓰라고 하였다. 다음날 지혜 스님이 무리를 데리고 신사의 밑을 파보니 황금 160량이 나왔다. 이로써 불전 수리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서악, 즉 선도산은 신라 초기불교가 어떻게 민간 신앙과 접점을 맺고 융합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그들의 성스러운 어머니가 있는 곳에 신라 왕들의 무덤이 즐비한 것도 이곳이 상서로운 곳임을 알게 한다.

태종무열왕릉과 고분군

경주시 서악동의 선도산 동쪽 능선 아래에는 신라를 통일한 태종무열왕릉이 존재한다. 사적 제20호로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무열왕릉의 봉분 높이는 약 8m, 봉분 직경은 35.51m, 봉분 둘레 약 113m이며, 묘제는 횡혈식석실분이다.

무열왕릉의 동북쪽에는 무열왕릉비가 세워져 있다. 비신의 귀부는 장방형의 대석 위에 올려진 것으로 네 발과 머리의 표현은 생동감이 넘쳐 있어 신라

조각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등의 전면에 귀감문을 조각하고 그 주위에는 비운문(飛雲文)을 둘렀다. 비신의 갓머리 장식인 이수의 전면에는 6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 중앙에는 전서체로 '태종무열태왕지비(太宗武烈太王之碑)'라는 2행 8자가 양각돼 있다. 이 명문에 의해 무열왕릉은 신라 역대 능묘 중에 피장자가 명확한 유일한 능이다.

귀부의 네 모퉁이에는 초석이 남아 있어 당초에는 비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열왕릉의 귀부와 이수는 비록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신라에 발전된 것이나 조각의 정교·화려함에 있어서는 당나라 시대의 조각품을 능가하고 있다.

경주에 흔치 않는 서악리 삼층석탑

서악동 고분군을 지나면 통일신라시대 모전석탑(模塹石塔)계열의 서악리 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이 탑은 지붕돌의 지붕면도 지붕받침처럼 층단으로 이뤄져 있는 경주지방에서 흔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기단은 20cm 높이의 지대석 위에 육면체로 다듬은 8개의 돌로 '밭전(田)자 모양으로 감석이 없는 이형기단(異形基壇)이다. 지대석은 아무런 장식 없이 편만 바르게 다듬은 장대석으로 남면은 1매, 북면은 2매, 동서면은 각각 2매로 맞추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 지반이 내려앉아 기단이 조금 내려앉고 부재가 제자리에서 조금씩 튀어나왔다. 탑몸 받침돌은 뒷면은 1층 몸돌을 받치기 위하여 면을 바르게 다듬고 아랫부분은 뿌리를 내어서 면석에 꽂히게 다듬었다. 이와 같은 돌 쌓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보아 안정감이 있고, 상당히 발전된 방법으로서 다른 석탑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이다.

경주 부근에서 서악리 삼층석탑과 비슷한 모양의 탑은 남산리 동탑과 남산 칠불암 뒤편 봉우리 서편에 있는 절터에 남아 있는 탑체 가운데 기단석과 지붕돌, 탑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남산리 동탑은 기단 위에 3단의 층급이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1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 생략된 형식을 하고 있어, 통일신라 하대의 퇴화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석탑으로 추측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악리 삼층석탑은 전탑형식의 유형 분포를 조사, 연구하는 지표가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신라 왕릉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 알 수 있는 태종무열왕릉

정상에 아미타마애불 '우뚝'

오늘도 천년 경주를 굽어봐

선도산 정상에 마애불 '웅장'

경주 선도산 정상에 마애불 '웅장'이 있다. 이곳 거대한 암벽에는 마애삼존불입상이 조성돼 있다. 본존불은 돌출된 암벽면에 고부조하고 좌우의 협시보살은 다른 돌로 조성한 원각상이다. 높이는 본존불 6.85m, 향원쪽의 관음보살입상은 4.62m, 향원쪽의 대세지보살입상은 4.55m이다. 본존불의 얼굴은 눈 이상이 탈락되었으나 큼직한 코, 각이 진 얼굴의 윤곽선, 굵은 목 등에서 강건함을 느낄 수 있다. 여각한 불상의 위엄과 힘을 발산하는 장대한 신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 편평해지면서 좁아지는데, 부근에서 수습한 연화대

좌와 연결돼 있다. 통견의 범의를 걸친 어깨선은 둥글지만 좁은 편인데 가슴 아래로 흘러내리는 U자형의 옷주름선은 힘이 깃들어 있다.

보살상은 독립 원각상이지만 그 뒷면은 마치 암벽 면에서 떨어진 듯 평평해서, 측면의 너비가 좁은데, 이로 미루어 두 보살상은 마애불이라는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 같다. 이와 같이 뒷면은 거의 조각하지 않고 측면 폭이 좁은 석주형의 불·보살상이 9세기 이후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는 것은 흥미롭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비의 관음보살은 내면의 범열(煩惱)이 미소로 스며나오는 우아한 기풍을 엿보게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룬 데 없는 맵시있는 솜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존불에 비해 신체는 섬세하며 몸의 굴곡도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없애준다는 대세지보살은 얼굴과 손의 모양만 다를 뿐 모든 면에서 관음보살과 동일하다. 사각형의 얼굴에 눈을 바로 뜨고 있어서 남성적인 힘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암벽에 새긴 부조적인 불상조각의 특징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이 마애삼존불상의 광배는 결실됐는지 원래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얼굴표정이나 손모양은 매우 정교하게 고부조해 설명하는 내면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로, 거대 석불상이나 보다 쉽게 불상을 조성하고자 할 때 애용하는 수법이다.

불교, 유교가 공존하는 서악

선도산은 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이다. 바로 설총, 김유신, 최치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서악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선도산 아

래에 서악정사(西岳精舍)로 창건해 향사를 지내오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1602년 묘우(廟宇)를 신축하고, 1610년에 강당과 재사를 중건하였으며, 1623년(인조 1년) '서악(西岳)'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며, 1873년에 중수해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묘우, 5칸의 시습당, 5칸의 절차헌, 5칸의 조설헌, 영귀루, 3칸의 전사청, 4칸의 고자실, 도동문, 외문, 내문 등이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2월 중정(두번째 정일)과 8월의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서원에서의 건물배치는 일정한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할 공간은 있어야 한다. 즉 사주(祠主)에 제사하는 사(祀)를 위한 공간과 유생들이 글공부하는 재(齋) 공간이 필수 있어야 하며 그 외에 경각, 비각이 별도 또는 재공간에 함께 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은 '서연산에 머무지 몇 심년이 지났고/ 천체너를 불러 신선의 옷을 찢는다/ 장생술도 영이함이 없지 않았는데, 부처를 뵈고 옥황이 되었도다'라는 찬시를 지었다. 서악(선도산)은 고대의 산신 신앙에 불교 사상과 신선 사상이 모순 없이 융합된 곳이다.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내 온 서악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오늘도 경주를 굽어보고 있다.

신동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6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남산에서 불국토로 가는 길을 찾아서
- 일시 :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 1 정의 : 부역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기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柴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감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실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균),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